

‘나랏말씀이 중국과 달라...’ 한글 쓰는 행복 가이 없어라



4대 세종(2)

한때 국보 1호를 재지정하자는 논란이 있었다. 그때 납대문 대신 교제 대상 1호가 훈민정음(한글)이었다. 지금은 흐지부지 되었으나 한글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감격할 노릇이다. 한글만큼 표현 영역이 심화, 광역화, 고등화, 고급화, 다양화된 문자는 없다. 국력과 언어 세력이 약하여 세계에서 힘을 쓰지 못할 뿐이다. 60억 인구 중 남북한 합쳐 7천만 정도만 사용하니 1% 약간 웃도는 세력이다. 언중(言衆)이 5억 명만 된다면 당당한 세계이다.

세종의 위업을 꼽자면 손가락, 발가락이 부족하다. 그 중 엄지손가락의 묶은 한글 창제다. ‘나랏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는 서로 사맛디 아니할재...’ 지금도 달달 외고 있다. ‘國之語音 異乎中國...’ 이것 역시 자다가 깨워도 된다. 전자가 108자고 후자가 54자다. ‘월인석보’ 장수는 108쪽, 국보 70호 훈민정음(책자)은 33장으로 구성되었다. 아뵤한 넘새가 감지된다.

한글 창제 후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집현전 학사 신석조, 김 문, 정창손이 올린 상소는 이렇다. ‘군이 언문을 만들어야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재상에서 신하들까지 널리 상의한 후에 행하여야 할 것인데 갑자기 널리 퍼려 하시니 그 울음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성삼문은 한글이 창제될 무렵 집현전에 들어왔고 신숙주는 창제 2년 전에 들어왔으나 그 다음해 일본으로 갔다. ‘한글 창제의 기획 및 총괄=세종, 실무 담당=집현전 학사들’이란 통념에 의문이 간다.

민족사 위업에 기여한 공으로 훈장은 고사하고 실록에 기록조차 되지 않은 해각존자 신미 대사를 떠올린다. 법어, 티베트어, 각필 부호는 신미 대사의 능력 안에 있었다. 훈민정음 창제 후에는 불사의 번역 간행에 깊숙이 관여했다. 세조가 강경도감을 설치하여 책임을 맡겼다. <석보상절> 편집 책임, <원각경> <선종영가집> <수심결> 등을 직접 번역했다. 훈민정음에 탈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나중에 한글을 배워서 번역했다면 시간적, 물리적으 로 불가능하다. 국어학자들도 동의한다. ‘한글 창제에 참여한 스님이 주도면밀한 노력을 은밀하게 기울인 까닭은 새로운 문자를 창제한 큰 목적 중 하나가 불교의 보급에 있었기 때문이다. 종교적 염원이 어지 부분의 글자 수를 불교에서 신성한 수로 여기는 108자와 그 절반인 54자, 또다시 그 절반인 27자 등으로 조절하는 등 은밀한 방법을 통해 반영했다고 생각한다.(김광해 서울대 교수)’



해각존자 신미대사.

신미대사 한글창제 사실상 주도...불교 보급 목적 내포

세종 한글 활용 위해 승가 도움 언어 왕성한 불경 언해

생애 후반 불교에 귀의, 대궐 안에 '내불당' 세워 예불

이러한 숫자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 너무 정교하다. 그러나 한글 창제와 보급에 대한 신미 대사의 공적에 대해서는 조선조의 사정은 매우 인색하다. 대 그림자 마당을 쓸어도 마당에는 흔적 하나 남지 않는다. 원로 국어학자 이승녕 선생은 이렇게 애석해했다. ‘신미는 불경 번역에 큰 공헌을 했다. 그의 행적이 뚜렷하지 않음은 그의 처세의 일단이 아닌가 한다. 고승이 후세에 남긴 법어, 시, 글 한편 없다는 것은 너무도 적막한 생애를 스스로 걸어간 것 같고 속세의 허무가 신미로 하여금 자취를 남기지 않게 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라고.

몇 가지 상상적 추론을 해본다. 첫째, 한글 창제는 공개적 국책사업이 아니다. 연일 여전 회의를 거쳐 추진한 사업이 아니다. 그러면 별때 같은 대신들의 반대를 감당할 수 없다. 실록에도 한글 창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기록은 한마디도 없다. 세종의 은밀한 독자 작업의 신물이다. 금융실명제 실시, 하나회 체결과 같은 것이다. 둘째, 창제 과정에 집현전 학사들의 도움은 없었다. 창제 후 그를 또한 반대 상소를 올린 것이 증거다.

셋째, 어학에 능한 신미 대사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림자로 도왔다. 공적에 대한 기록은 없고 어용승이란 비난의 기록만 있다. 그 역시 세종과의 은밀한 밀약으로 자신의 기여에 대해 일체 기록물을 남기지 않았다. 세종의 요청으로 왕의 침전에서 법문을 하기도 했다. 어찌 법문만 했을까. 탁월한 언어학 교습이 은밀히 이루어졌다. 세종은 한글 창제 후 활용, 배포에 대해서도 승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왕성한 불경 언해가 그것이다.

혁명은 화려하나 혁명가는 외롭다. 무월 문자혁명을 달성한 세종은 생애 후반부에 불교에 귀의한다. 승유역불의 국시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불사를 자주 행하고 경전 읽기를 즐겼다. 대궐 안에 내불당을 세워 예불을 올렸다(세종 30년). 조경 대신, 집현전 학사, 성균관 유생들의 간언과 상소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뜻이 견고했고 업적은 화려했다. 지지율 역시 상한가다. 성공한 혁명가는 은은하게 삼보에 귀의했다.

모든 정치가는 혁명가를 꿈꾼다. 일세를 풍미할 회오리를 만들길 원한다. 그러나 자기희생을 동반한 혁명이 아니라면 바람만 일으켜 민심을 혼미케 한다. 무지개와 꽃보리를 만들어 후세무민한다. 수하들은 명분 만들기에 바쁘다. 그런 미혹을 민초들도 즐긴다. 혁명의 허전함을 느낄 때면 어느새 한 생애가 끝난다. 역사가 이어지는 한 지속적으로 고맙게 사용할 물건을 만들어준 제왕, 혁명가의 이름이 세존이다.

대학 은사신 국어학자 이동림 선생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세종대왕이 만드신 스물여덟 자로 나는 평생 먹고 산다. 어디 나 하나뿐인가. 고마운 일이지. 허허!’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세종 어진.

영릉은...

세종(1397~1450)과 비 소현왕후(1395~1446) 심씨의 합장릉이다. 22세에 등극하여 54세로 승하할 때까지 32년간 재위한 세종은 추종을 불허하는 성군이다. 근처에 효종의 영릉(孝陵)이 있어 합하여 영릉릉으로 불린다. 사적 제195호.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83-1 면적 65만4322평이다. 원래 현릉(서초 구 내곡동) 서쪽에 있었으나 1469년(예종 1년) 이곳으로 옮겼다. 조선 최고의 명당이라고 풍수기들은 입을 모은다. 산세가 모란꽃봉오리가 둘러싼 모란반개형(牡丹半開形), 용이 돌아와서 정남향으로 한 이유를 제다부기에 회룡고조형(回龍顧祖形), 주위 산세가 봉황이 날개를 펼치고 입을 품듯 능을 감싸다 해서 비봉포란형(飛鳳抱卵形)이라고도 한다. 정치적 풍파 때문에 멀리 묻힌 2대 정종(후릉, 개성), 6대 단종(장릉, 영월)을 제외하면 도성에서 가장 밀다. ‘영릉은 도성 100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지만 ‘물길로 가면 하루거리’라는 논리로 합리화했다. 능은 병풍석을 두르지 않고 난간석만 둘렀다. 능 앞에 혼유석이 두 개 놓여 있어 합장릉임을 알 수 있다. 봉분 속을 석실이 아니라 회격(灰隔) 관을 봉분 속 광중에 내려놓고 그 사이를 회로 메워서 다짐으로 한 이유는 예종의 부왕인 세조가 석실과 병풍석을 쓰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다. 석실과 병풍석을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역에 동원된 부역군이 6천명에서 절반인 3천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프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철(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로공사)

서울·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대웅전완공 초파일대법회 대원 문재현 선사님 법문

삼원 국제선원의 목조 대웅전(150평)이 대원 문재현 전법 선사님의 대원력과 사부대중의 노력으로 10여년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이 대웅전에서 초파일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삼원 국제선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77대 조사이시며, 조계종 선사님들 중에서도 그 법이 가장 뛰어난 ‘지혜제일’이라 불리우신 정전강 대선사님의 인가를 받으신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께서 조실로 주석하고 계십니다.

금년 초파일 대법회에 오시면 평안종사이신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의 법문을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생한 육성의 심지법문을 들어 생사해탈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정법의 인연을 맺으십시오.

포천의 국제적인 선도량, 삼원국제선원의 초파일법회에 나오셔서 정법을 부추하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 : 2007년 5월 24일 목요일(음 4월 초파일)
- 시간 : 오전 11:00 - 12:00

☎ 031-531-8805 www.zenparadise.com

동서양식 레이키(靈氣)가 왜 화제인가?

동서양식 「레이키(靈氣, Reiki)」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 氣 치료 능력이 될 수 있고 생활의 각 방면에 氣 에너지를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이키는 이미 전세계 50~60개 나라에 널리 보급돼 있지만 우리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에서 전수해 드리는 동서양식 레이키는 여러가지의 레이키 기법을 융합한 것이어서 아주 쓸모가 많습니다.

1.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
 - ▶개인교육 : 교육기간 2~3개월, 교육비 70만원
 - ▶단체교육 : 교육기간 2일(매월 1회·토,일요일) 교육비 55만원
2. 카루나 레이키 교육
 - ▶개인교육 : 교육기간 4~5시간 정도, 교육비 30만원
 -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야 배울 수 있습니다.
3. 지도자 소개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운영자인 재(박희준)는 번역가·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7년 이후 외국에서 여러가지 레이키를 배워온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입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현대생활레이키)
자매홈페이지 :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신비의 인도산 자수정
새봄 행운의 보석 단주와 목걸이 수입

할액순환, 기억력증진, 어깨통증에 효과
살이썩는 1등급자수정, 목에걸면 눈피로없어

살아있어 행운과 건강을 주는 보석이라는 인도산 자수정이 국내 처음 반입됐다. 자수정은 본초강목(本草綱目)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병을 치료하는 보석으로 대체의학에 이용된다. 생명 진화적 과정은 수백만(32786KHZ)의 규칙적인 에너지를 자동으로 방출한다. 따라서 자수정이 내뿜는 생기는 체내의 유해독소는 제거시키고 몸의 방란스를 잡아주어 잠재파워를 향상시킨다. 천연 자수정은 저온에서도 다량의 노폐물을 따모 배출하여 체내의 신진대사를 활성화 시킨다고 기록되어있다.

급번 반입된 자수정은 1등급으로 색상과 크기를 일정하게 가공한 단주와 목걸이 세트로 목에 걸고 다니면 세련되고 품위가 있는 보석으로 할액순환, 기억력 증진, 어깨통증, 신경통에도 효과가 있다. 가격은 58,000원으로 불자들에게의 소중한 선물로도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특급등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덕터 / 전화 (02)734-7300 능침 360-12-046446 (최능우)